

<蛇龍>系 詩歌의 生成과 展開

황 병 익*

차 례

I. 머리말

II. <蛇龍>系 詩歌의 생성 배경

III. <蛇龍>系 詩歌의 전개 양상과 그 의미

IV. <蛇龍>系 詩歌의 문학사적 의미

V. 맺음말

I. 머리말

《고려사》악지 속악조에 실린 <삼장(三藏)>·<사룡(蛇龍)>과 그 부기(附記)는 <쌍화점>과 연관되어 있거나 고려속악의 연행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 일찍부터 많은 논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 그 가운데 <삼장>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쌍화점>의 2연·민사평(閔思平)의 소악부(小樂府)와 연관지어 속악·한역시가·민요 등 각 시가간의 관계를 살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고, <사룡>에 대한 연구는 작품에 등장하는 ‘용’과 ‘뱀’의 의미 해석을 통해 <쌍화점>에 등장하는 ‘우뚱룡’의 상징성을 밝히는 데 주력해 왔다.¹⁾ 그 가운데는

*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이우성, 고려말기의 소악부, 《한국한문학회연구》1<한국한문학회, 1976>; 송정현, 쌍화점 연구 - 문학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논문집》17<충북대, 1979>; 김쾌

<삼장>·<사룡>을 <쌍화점>과 연결 짓기보다는 작품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각각의 의미 층위를 살피는 연구도 있었다.²⁾ 이들 연구는 두 작품에 주목하여 고려속악연구의 기초를 다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으나 의미의 층위 분석이 매우 도식적이고, 후대의 시조 작품들과 관련된 논의가 매우 피상적이거나 느슨하여 가창 상황과 연관된 의미 분석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삼장>·<사룡>은 구체적인 사건을 제시하고, 그 사건을 ‘소문’ 모티프와 연관짓는 구조적인 측면이 유사하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이나 소문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상당히 다르다. 이들 작품이 탄생한 문화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작품에 드러나는 사건과 소문의 의미를 면밀히 살피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삼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선행되었다. 이에 따라 본고는 기존의 연구가 소략하고, 같은 계통으로 유형화될만한 시조 작품이 있는 <사룡>을 주된 고찰 대상으로 삼고, 이 계열 시가들의 창작 배경과 작품 전개 양상, 그리고 공통적인 의미 층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룡>계 시가의 문화사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II. <蛇龍>系 詩歌의 생성 배경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룡(蛇龍)>계 시가란 ‘특정한 소문 + 소문에 대한 당사자의 반응’의 구조를 가진 시가 양식을 의미한다. 특정 소문은 허위토과장·위장되는 경우가 많고, 소문에 대한 당사자의 반응은 체념의 외연 속에

덕, 쌍화점 소고, 《한국문학논총》4<한국문학회, 1981>; 최미정, 고려가요와 역해 악부, 《우전선호열선생고회기념논총》<창작과비평사, 1983>; 최동국, 쌍화점의 성격 연구, 《문학과 언어》5<문학과 언어 연구회, 1984>; 박노준, 쌍화점고, 《한국학논집》11<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7>; 김석희, <쌍화점>의 발생 및 수용에 관한 전승사적 고찰, 《어문논지》6·7합집<충남대 국문학과, 1990>, 등등 여러 선행 연구가 있다.

- 2) 최용수, <삼장>·<사룡>고, 《영남어문학》13<영남어문학회, 1986>; 정운재, <삼장>과 <사룡>의 원심력과 구심력, 《국어교육》83·84<한국 국어교육 연구회, 1991>

강력한 바람을 내포한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하소서’라는 메시지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일반적으로 소문은 ‘실사(實事) A → 소문 B → 실사 당사자제로의 환원 C → 실사 주인공의 반응 D’와 같은 연결 구조를 가진다. 이 중 A → B 과정에서는 흥미 추구, 음해(陰害) 욕구 등에 힘입어 허구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고, C 과정에서는 성격·친밀도 등 전달 주체의 성격에 따라 굴절되기도 한다. 그리고 C → D 과정에서는 자기 방어, 사실 은폐 등의 목적에 따라 A·B를 선택·나열하고, 다시 B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반응(부정·축소 등)까지 가미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소문 당사자가 반응을 형상화하는 D단계에서는 실사인 A로부터 사실상 상당한 거리가 생겨날 수 있다.

<사룡(蛇龍)>계 시가는 이와 같은 소문의 전달 과정을 거쳐 재구성되었는데, 명확한 개념 정립을 위해 구체적인 작품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고려사》악지<사룡>① 뱀이 용의 꼬리 물고 / 태산의 절벽을 지나 갔다네. / ② 만 사람이 만 가지 말을 한대도 / 두 사람의 마음엔 짐작이 있네(有蛇含龍尾 聞過泰山岑 萬人各一語 斟酌在兩心)

② 『歷·時』³⁾ 2606 (『抵歌 12』) ① 도고만 비암이라서 龍의 초리 등불이 묻고 高峰峻嶺을 넘단 말이 있노이라 ② 원놈이 원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하시소

작품 (1)은 《고려사》악지 속악조에 실린 <사룡>이고, 작품 (2)는 이와 내용상의 차이가 거의 없는 시조 작품이다. 작품 (2)가 “사룡의 원사(原辭)”라고 한 《근화악부(槿花樂府)》의 기록⁴⁾으로 보아, 위의 작품 (1), (2)는 발생본적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 (1)의 제 1·2구, 즉 ① 부분이 소문 B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제 3·4구, 즉 ② 부분이 소문 주인공의 반응을 담은 D영역에 해당한다. 작품 (2)에서도 초장·중장, 즉 ①이 소문 B에

3) 『歷·時』란 沈載完의 校本《歷代時調全書》<世宗文化社, 1972>의 약칭이다. 그 뒤의 숫자는 그 책에 실린 시조의 번호를 의미한다.

4) “高麗史樂志 蛇龍條 有蛇含龍尾 聞過太山岑 萬人各一語 斟酌在兩心 此歌即蛇龍原辭 依此辭意則 兩心之兩當 是君子之誤”<《槿花樂府》97 ; 沈載完, 《時調의 文獻的 研究》<世宗文化社, 1972>, p.30에서 재인용).

해당하고, 종장은 D에 해당한다. 당사자의 반응을 담아내고 있는 종장 D는 강한 어조 속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사롱>계 시가는 이와 같은 구조를 근간으로 하거나 이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작품군을 지칭한다.

본 장은 B와 D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시가 작품 자체와 작품에 대한 기본 정보, 즉 창작 연대·사회 상황·작가 등을 종합하여 실사 단계의 상황 A를 예측해 보려고 한다. 이 과정은 각각의 작품들의 전개 양상과 의미 층위를 살피는데 기본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사롱>계 시가 가운데 그나마 작품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은 《고려사》악지의 <사롱>과 정철[『歷·時』 1798, 《松江歌辭》42], 윤선도의 시조 작품[『歷·時』 592, 《孤山遺稿》遺懷謠] 등이다. 그러므로 각 작품이 가진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 작품의 생성 배경을 살펴야 할 것이다.

첫째, 《고려사》악지에 실린 <사롱>의 생성 시기와 향유 상황을 짐작하게 해주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3) 기해(己亥) 25년[원 대덕 3년] 5월에...(중략)...수강궁에 행차하였다. 왕이 여러 소인들을 가까이하여 유흥을 즐기니, 형신(倂臣) 오기(吳祁)·김원상(金元祥)과 환관(宦官) 석천보(石天補)·석천경(石天卿) 등이 소리와 여색으로 환신 사기에 힘써, 관현방(管絃坊)과 대악(大樂)과 재인(才人)이 오히려 부축하다 하여 행신들을 각 도에 보내어 관청 기생으로서 인물과 재예가 있는 자들을 뽑고, 또 도성 안의 관비(官婢)나 무당으로서 노래와 춤을 잘 추는 자를 선발하여 적을 궁중에 두었다. 그러고는 비단옷을 입히고 말총모자를 씌워 따로 한 때를 만들어 남장(男粧)이라 부르고, 새로운 음악(新聲) [三藏·蛇龍]을 가르쳤다. ...(중략) ... 그 높고 낮음과 느리고 빠른 것이 음절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왕이 수강궁에 행차하면, 친보의 무리들은 그 길에 장막을 치고 자기 명기를 끼고는 밤낮으로 노래와 춤추며 외통하여 군신간의 예의를 다시 찾아 볼 수 없었으며, 공제(供饋)하고 하사하는 경비가 이루어 기록할 수 없이 많았다.⁵⁾

5) “己亥 二十五年 元大德 三年...(中略)...幸壽康宮 王狎昵群小 嗜好宴樂 倂臣 吳祁·金元祥 內僚 石天補·天卿等 務以聲色容悅 謂管絃坊大樂才人 猶爲不足 分遣倂臣諸道 選官妓有色藝者 又選城中官婢 及巫善歌舞者 籍置宮中 衣羅綺織馬尾笠 別作一隊 稱爲男粧 教以新聲 其歌云 三藏寺裏點燈去 有社主今執吾手 儼此言兮出寺外 謂上座兮是汝語 又云 有蛇含龍尾 聞過泰山岑 萬人各一語 斟酌在兩心 其高低緩急 無不中節 王之幸壽康宮也 天補輩 張幕其側 各私名妓 日夜歌舞宴樂 無復

《고려사》의 악지·열전 ‘오잠(吳潛)조, 유계(兪槩)의 《여사제강(麗史提綱)》, 안정복(安鼎福)의 《동사강목(東史綱目)》 등에도 위의 자료 (3)과 유사한 기록이 있지만 충렬왕대라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 정확한 연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삼장>과 <사롱>이 불리어진 연대는 충렬왕 5년(1279)~충렬왕 11년(1285) 사이 어느 때라는 주장⁶⁾까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편년체 사서인 《고려사절요》에는 이들의 향유 연대가 충렬왕 25년 5월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⁷⁾ 그러므로 <사롱>이 지어져 불린 시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거론해야 할 문제가 바로 <사롱>의 향유자 내지는 작자 문제이다. 《고려사》·《고려사절요》에는 행신(倖臣) 오기(吳祁=吳潛)·김원상(金元祥)과 환관(宦官) 석천보(石天補)·석천경(石天卿) 등이 소리와 여색으로 환심 사기에 힘썼는데, 이들이 기녀들에게 <삼장>과 <사롱>등의 신성(新聲)을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충렬왕의 행신(倖臣)인 오잠·김원상 등이 <사롱>의 향유층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신성(新聲)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지 않고, 그들을 작자층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즉 신성의 의미 파악은 <사롱>등의 시가에 대한 행신들의 역할을 규정하는 선결 과제인 것이다. 신성(新聲)은 사전적으로 ‘새로 만든 악곡’을 의미한다.⁸⁾ 즉 기존에는 들어보지 못하던 새로운 가락을 의미하는 말이다. 《한비자(韓非子)》에 그 진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君臣之禮 供億賜與之費 不可勝記”(《高麗史節要》권 22, 충렬왕4)

- 6) 러종등, <쌍화점>노래 연구, 《고려시대의 가요문학》(세문사, 1982), p. I-91.
 7) 오잠과 함께 작품의 향유층으로 기록되어 있는 김원상이 <태평곡>을 통해 처음으로 통례문지후(通禮門祗候)가 된 것이 충렬왕 22년이다. 그렇다면 이들 작품의 향유 시기는 당연히 그 이후의 연대가 될 것이므로, 충렬왕 25년으로 제시된 《고려사절요》의 기록 자료는 더욱 신빙성을 더한다. 이들 작품의 향유 시기를 충렬왕 25년으로 보는 것은 박노준·최용수·윤성현·임주탁 또한 마찬가지이다. [최용수, 앞의 논문, p.436; 박노준, 앞의 논문, p.21; 윤성현, <삼장>논의를 통해 본 쌍화점의 성격, 《동방고전문학연구》1, 동방고전문학회, 1999, p.45; 임주탁, 고려시대 국어시가의 창작 및 전승기반 연구(서울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9), p.260.]
 8) “新作的樂曲 國語管八 平公說新聲”(廣東·廣西·湖南·河南辭源修訂組, 《辭源》, 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87), p.745.

(4) 어찌하여 ‘음악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옛날 위(衛)나라 영공(靈公)이 진(晉)나라에 가다가 복수(濮水)라는 강가에 이르러 여장(旅裝)을 풀게 되었는데, 한밤이 되자 어디선가 복소리와 함께 새로운 곡[新聲]이 들렸다. 영공은 매우 즐거워 사람을 시켜 이웃에게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다 하였다.

영공은 악관인 연(漣)을 불러 말하기를,

“지금 분명 새로운 곡이 들렸는데 이웃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하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요, 그대는 나를 위해 그 소리를 듣고 악보에 옮겨 주시오.” 악관인 연은

“중합니다.”

라고 말했다.⁹⁾

자료 (4)를 보면 영공(靈公)은 가사도 알 수 없는, 저 먼 곳에서 복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소리를 신성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므로 신성은 1) 가사(歌詞)와는 다른 측면에서, 2) 익히 들어보지 못하던, 새로운 노랫가락을 지칭하여 쓰인 말이라 규정할 수 있다. 한수(韓脩:1333-1384)가 《유항시집(柳巷詩集)》¹⁰⁾에서 <정과정>을 신성이라 한 것도 정서가 새로 만들어낸 삼기(三機)의 음악 형식 때문으로 보인다. 자료 (4)나 한수의 문집에서 신성이란 말이 늘 복·가야금 등의 악기 반주와 연관하여 쓰이고 있다는 사실 또한 신성은 문학적 측면보다는 음악적 측면에 치중하여 사용된 용어임을 짐작하게 한다. 요컨대 신성은 1차 텍스트[原辭]의 신구(新舊)와는 무관하게,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의 악곡과 달리 새롭게 작곡한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다.

신성의 의미가 이상과 같다면 자료 (3)에서 오잠이나 김원상 등의 행신들이 “새 음악[新聲](三藏·蛇龍)을 가르쳤다.”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악곡의 고저(高低)와 완급(緩急)을 기녀들에게 가르쳤음을 의미한다. 이들의 음악적 재능은 김원상이 <태평곡>을 지어 충렬왕을 감동시켰다는 기록¹¹⁾에서 단적으로 확인

9) “奚謂好聲 昔者衛靈公將之晉 至濮水之上 稅車而放馬 設舍以宿 夜分 而聞鼓新聲者而說之使人問左右 蓋報弗聞 乃召師涓而告之曰 “有鼓新聲者 使人問左右 豈報弗聞 其狀似鬼神 子爲我聽而寫之” 師涓曰 諾”(《韓非子》十過)

10) “字輪江月上瑤琴 一曲新聲古意深 豈謂如今有鍾子 只應彈盡伯牙心”(韓脩, 鄭中丞謫居東萊 對月撫琴, 《柳巷詩集》: 《韓國文集叢刊》5, p.260.)

11) “金元祥 忠烈朝 登第稍遷注簿 有妓謫仙 來得幸於王 元祥與內侍朴允材 俱爲妓同里間相往來 元祥製新謠<大平曲> 令妓習 一日內宴 歌之 王妬且變色曰 “此非能文者 不能 誰所爲耶?” 對曰 “妾兄弟元祥·允材所製.” 王喜曰 “有才如此 不可不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작품에 대한 기본 정보를 마련하면, <사룡>은 충렬왕 25년(1299년) 5월에, 행신(倅臣) 오잠(吳潛)·김원상(金元祥), 환관(宦官) 석천보(石天補)·석천경(石天卿) 등이 새로 작곡¹²⁾하여 부른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룡>의 생성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서는 충렬왕 25년경의 사회 상황과 이 작품의 향유층이자 작곡자인 행신(倅臣)·환관(宦官)들의 정치적 입지를 연관지어야 할 것이다.

원 지배기에 이르러 고려의 정치·사회적 모순은 갈수록 심해졌다. 무신란과 대몽 항쟁을 경험하는 동안 가중되었던 모순과 혼란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응방(鷹坊)을 통하거나 역관·환관을 지내며 새롭게 성장한 권문세족(權門勢族)들의 정치적·경제적 수탈까지 가중됨으로써 백성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국가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다.¹³⁾ <사룡>이 불리어지던 충렬왕조는 이와 같은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하던 시기이다. 게다가 <사룡>을 연행한 오잠·김원상 등은 이들 권문세족의 무리였다. 충렬왕 24년(1298), 새롭

用.”以元祥 爲通禮門祗候 允材爲樞務”(《高麗史》 卷 125, 列傳 38, 姦臣 1, 金元祥)

- 12) 그동안 <산장>·<사룡>의 작자에 대해서 민중속요설(양주동·서수생), 기녀(妓女) 소작설(전규태·최동원), 행신배(倅臣輩) 소작설(정병욱·김명호), 오잠(吳潛) 소작설(려중동·이능우·최용수)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양주동,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1947, p.253 ; 서수생, 익제소악부연구, 《논문집》5, 경복대, 1961, p.45 ; 전규태, 《한국 고전문학의 이론》, 정음사, 1966, p.214 ; 최동원, 고려속요의 향유계층과 그 성격, 《고려시대의 가요문학》, 새문사, p.II-99 ; 정병욱, 《한국고전시가연구》, 신구문화사, 1982/1992 ; 김명호, 고려가요의 전반적 성격, 백영 정병욱선생 환갑기념논총 II《한국시가문학연구》, 신구문화사, 1983, p.77 ; 려중동, 쌍화점 고구(1), 《어문학》19, 1968, p.30 ; 이능우, 고려가요의 성격, 《고려가요연구》, 정음사, 1979, p.40 ; 최용수, 앞의 논문, p.434.] 그러나 민중 소작설은 고려속가의 전반적인 생성기반을 살피지 않고 1차 텍스트에만 초점을 둔 결론이고, 기녀 소작설은 그들의 창작 능력을 과대 평가한 결과이다. 결국 오잠 등의 행신들에게 초점이 놓이게 되는데, 앞에서 살폈듯이 이들은 이들 노래의 작곡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현재 전해지는 자료,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의 기록만으로 가사를 지은 사람까지 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 13) 閔賢九, 권문세족과 신흥사대부, 한국사연구회편, 제2판《한국사연구입문》(지식산업사, 1987) p.237 참조.

게 왕위에 오른 충선왕에 의해 복잡하게 뒤튼린 당대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나타났고,¹⁴⁾ 이때 정치·경제·사회·종교 등의 방면에서 주요 개혁 대상이 된 것이 바로 권문세족으로 부상하던 친원 세력의 불법과 부정이었으므로¹⁵⁾ 오잠·김원상의 입지가 약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다. 충선왕 개혁 정치의 선봉에는 박전지(朴全之)·최참(崔岾)·오한경(吳漢卿)·이진(李璵)의 4학사가 있었으며, 정치도감의 개혁 활동에는 왕후(王后) 이외에 안축(安軸)·백문보(白文寶)·전록생(田祿生) 등의 정치관들이 주역을 맡았다. 그들은 대개 향리 자제이거나 미미한 가문 출신자로서 과거를 통해 입사한 사림(士林)들이었다. 유학자로서 성리학에 상당한 조예를 지녔던 이들은 당시의 권문세족과는 판이한 성향을 가진 존재였던 것이다.¹⁶⁾ 충선왕과 이들 세력들이 천계 출신으로서 고위직에 오른 인물들을 밀어내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 하였으니,¹⁷⁾ 권문세족과의 알력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충선왕의 개혁 운동은 결국 원의 개입으로 좌절되고, 충선왕은 연경(燕京)으로 소환당하고 말았지만 이후 계파간의 싸움은 더욱 극심해졌다. 이들 계파간의 갈등은 이미 오랜 뿌리를 지니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다음 예문은 그 알력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5) 이인정(李仁挺)은 정언(正言)이 되어 여러 낭관들과 함께 말하기를
 “요사이 내료들 가운데 신분이 미천한 자들도 모두 왕을 따라 다닌 공로가 있다 하여 벼슬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문무관이 잡탕이 되고 말았으니 이는 역대 왕의 제도와는 어긋나는 것입니다.”¹⁸⁾

14) “충명과 전직을 지녔던 충선왕은 즉위하던 날에 이미 ‘백성을 위해서 천명을 하늘에 청하여 오래 쌓인 폐단들을 없애기를 맹세’할 정도였다. 사실 충렬왕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주도록 한 것도 충렬왕 자신의 의사였다기보다 원나라 성종을 책동한 충선왕 때문이었고, 그 직접적인 동기도 고려 조정의 부패를 일소하고 혁신정치를 해 보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高樹棚, 忠宣王 - 外勢에 눌린 悲運, 《韓國의 人間像》1 王家·政治家 篇(신구문화사, 1966), p.117. ; 《東亞史의 傳統》(일조각, 1979), p.139 재수록.]

15) 閔賢九, 위의 논문, p.237.

16) 閔賢九, 위의 논문, p.238 참조.

17) 金瑬澤, 《元干涉下の 高麗政治史》, 일조각, 1998, p.33 참조.

18) “仁挺 爲正言與諸郎舍言 “近內竪 微賤者 皆以隨從之勞 許通仕途雜亂朝班 有乖 朝宗之制 請收威命.” 正怒 欲觀所爲 陽許之既而復攻其狀 郎舍不計從 王因詔文主

(6) 여름 4월 기미일, 낭사(郎舍)들이
“공적이 없는 자, 그리고 조상의 내력에 흠집이 있는 자들을 관직에 많이 임명한다.”

라고 하여 임명장에 서명하지 않으므로 왕이 여러 번 명령을 내려 서명 하라고 하였으나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왕이 노하여 홍적 최송(崔崇)에게 명령하여 사의 대부 백문절(白文節)을 체포하라 하였다.¹⁹⁾

자료 (5), (6)은 모두 천계 출신 인물들의 벼슬길을 한정하여 그들의 정계 진출을 억제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인데, 이를 주장한 관료들은 주로 간관(諫官)들이었다. 천계 출신의 정치적 진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들 간관에 국한되지 않고, 천계에게 벼슬길을 허용함으로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인물들이 그러했다.²⁰⁾ 그 대표적인 계층이 바로 ‘사족(士族) [士林]들이었다. 간관은 이들 사족들의 불만을 대변하고 있었다.²¹⁾

총렬왕을 위시한 권문세족과 충선왕을 둘러싼 개혁 세력들간의 오랜 알력은 갈수록 정도를 더해갔고, 중국에는 총렬왕과 충선왕 부자간의 왕위를 놓고 치열한 투쟁에 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왕의 부자 사이를 이간하고 알력을 조장하는 자가 많았는데, <사룡>의 향유층이었던 권문세족, 즉 석천보(石天補) 부자나 오잠(吳潛) 등은 송인(宋璘)·석주(石冑)와 더불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당시 일파(一派)는 원나라에 있는 충선왕을 고려로 환국시키려는 운동을 전개했고, 이에 대해 반대파에서는 그의 환국을 저지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썼다. 총렬왕까지 충선왕의 환국 저지 운동에 가세하는데, 그가 원나라로 가서 충선왕의 비인 계국 공주의 개가(改嫁)를 주청하려 한 것도 환국 저지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룡>이 지어진 것은 이상과 같은 총렬왕과 충선왕 간의 부자 다툼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세력들간의 투쟁이 치열하던 총렬왕 25년이다. 그러므로 오잠이나 김원상·석천보 등이 주축이 되어 향유한 <사룡>에 드러나 있는 소문

事柳興 命仁挺 勿親事 竟取其狀批曰 “勿改成命.”(《高麗史》卷 106, 列傳 19, 秋適).

19) “夏四月…己未 郎舍以無功 有世累者 多拜官 不署告身 王屢命署之 不從 王怒 命忽赤崔崇 逮司議大夫白文節”(《高麗史》卷 28, 世家 28, 忠烈王 4년 4월 己未).

20) 홍승기, 《고려귀족사회와 노비》(일조각, 1983), pp.392~397 참조.

21) 金澤澤, 《元干涉下的 高麗政治史》, 일조각, 1998, pp.27~28 참조.

이나 “만 사람이 만 가지 말을 한대도 두 사람의 마음엔 짐작이 있네”와 같은 방어적 언술은 이 당시 그들의 정치적 입지와 무관하지 않다. <사룡>의 전반부에 제시된 소문 부분[백이~지나갔다네]은 당시 오잠 등을 밀어내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 하던 충선왕 계열의 개혁 세력들²²⁾이나 석천보가 좌복사(左僕射)로서 왕을 호종(扈從)할 때, “내료(內僚)가 득세한 세상이 되었구나.”라고 손가락질하던²³⁾ 백성들의 비판적인 언사를 회화화(戲謔化)하였다. 즉 오잠·오방영(吳邦英)·석주(石冑) 등의 무리가 충렬왕을 둘러싸고 국가의 정사를 좌지우지해 국가의 존폐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작 자신들은 부정하고 싶은 향간의 소문을 일어나기 힘든 가상 상황으로 구성하여 제시한 것이다. 아무리 부분은 향간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무근임을 설파(說破)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그리고 충렬왕의 충애를 확인하고 다짐 받아 두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다분히 국가적 대의보다는 자신들의 안일만을 위해 지어진 아첨(阿諛)의 성격을 지닌다 할 수 있다.

둘째, “심외산 세네바회…” 등 정철의 시조 작품은 내용상으로 보아 <사미인곡>·<속미인곡>과 같이 양사(兩司)의 논척(論斥)을 입어 창평(昌平)에 귀양가 있던 1587(선조 20) ~ 1588년(선조 21)경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²⁴⁾ <사미인곡>중의 “하계(下界)에 내려오니 울저귀 비슨머리 얼려던다 삼년일쇠”라는 표현은 유배된 지 삼 년임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어 그의 창평 유배 기간과 일치하고,²⁵⁾ 《송강집》에서도 전후미인곡(前後美人曲)의 창작 연대를 정해(丁亥)·무자(戊子) 연간[1587·1588]으로 보기 때문이다.²⁶⁾

22) 임주탁은 “이들은 충선왕의 즉위로 권력 중심에서 밀려나는 자신들의 처지를 개자추의 처지에 비견하여, 개자추의 <용사가(龍蛇歌)>(一名 士失志操)에 대한 신성인 <사룡(蛇龍)>을 지었다.”라고 <사룡>의 창작 기반을 밝힌 바 있다(임주탁, 앞의 논문, pp.261~262).

23) “天補 爲左僕射 扈從奉恩寺 領班而行人指之曰, “內僚得意之秋!”(《高麗史》卷 125, 列傳 38, 森臣 1, 吳潛)

24) 권영철, 정철론, 《한국문학작가론》(형설출판사, 1977), pp.217~219. ; 김석희, 민족어의 연금술사 -송강 정철, 《한국고전문학작가론》(소명, 1998), p.244.

25) 徐首生, 松江의 前後思美人曲의 研究, 《論文集》6, 慶北大學校, 1962, p.231 참조.

26) “[歌詞]前後美人曲 在此鄕[昌平]時所作 不記某年 似是丁亥戊子年間耳”(鄭澈, 天兵收復西部, 《松江集》 別集 卷 7 ; 《韓國文集叢刊》46, p.406, 《別集》追錄 卷 1).

그러면 이제는 당시의 정치 상황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사림은 훈구 세력을 대신하여 중앙의 정치무대에서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이 생기게 되었고, 이 대립이 마침내 분당을 낳게 되어 선조 8년(1575)에는 김효원 등 신진관료는 동인(東人), 심의겸을 중심으로 한 기성관료는 서인(西人)이라 하여 동·서의 분당이 생기게 되었다.²⁷⁾ 사림 최초의 분열인 동·서인의 출현은 외척 세력의 제거 문제와 관련한 심의겸(沈義謙)·김효원(金孝元)의 개인 시비에서 비롯되었다. 신조 8년의 심·김 양인간의 불화와 그 우인(友人)·친지 사이의 이에 대한 시비 수준에 머물던 분쟁을 격화시킨 요소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분쟁을 해소시키고자 분쟁의 핵심에 놓인 두 사람을 외직에 출보(黜補)한 데 있었다. 율곡 이이의 건의에 따라 좌의정 노수신(盧守愼)의 주청으로 이루어진 이 인사조처에 대해 불만을 가진 김효원 추종 세력들이 공공연한 시비를 일게 했고, 이로부터 각각의 지지·비판 세력의 색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²⁸⁾ 그 결과 사류(士類) 내부 선후배간의 분열, 곧 동인·서인으로의 분봉(分朋)이 시작되었는데, 선배 사류로 구성된 서인(西人)은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았고, 후배 사류가 가담한 동인(東人)이 압도적이었다.²⁹⁾ 정철은 이 둘 가운데 소수파인 서인에 속해 있었는데, 당시 그 또한 탄핵하는 사간원의 간청(懇請)³⁰⁾을 받았다. 평소 정철에 대한 신임이 두터웠던 선조가 이에 대하여 “정철은 사람됨에 있어서는 마음이 바르고 행실이 방정한데, 다만 말이 너무 곧바르기 때문에 시속에 용납을 받지 못하고 남에게 미움을 산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맡은 직책에 있는 힘을 다하는 것과 청백하고 충성스러운 절의에 대하여는 초목(草木)도 그의 이름을 아는 터”³¹⁾라고 옹호하였

27) 李基白, 新修版 《韓國史新論》(一潮閣, 1990), pp.277~278.

28) 이이는 이 시비의 진정(鎮定)을 위해 정철(鄭澈)·김계휘(金繼輝)·박순(朴淳)·이후백(李後白) 등과 이발(李潑)·김우옹(金宇顥)·김성일(金誠一) 등에게 상호 화해를 권유하고 김효원의 변을수령차정(邊恩守令差定)의 재고를 왕에게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오히려 선·후배 사람 양측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자 부제학의 직을 사퇴하고 해주로 귀향하였다(《선조수정실록》권9, 8년 10월 및 권 10, 9년 2월).

29) 鄭萬祚, 朝鮮時代 朋黨論의 展開와 그 性格,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4), pp.113~114.

30) 《선조》017, 16년 9월 9일.

31) 《선조》017, 16년 9월 11일.

다. 곧바로 사간원에서 정철의 경망함을 비판하며 파직을 청하였는데, 대사간(大司諫) 김우옹(金宇顥), 사간(司諫) 황섬(黃巖) 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7) “...(前略)...전하께서 정철을 청백하고 증성스러우며 정직하다고 하시면서 전상의 맹호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성상의 뜻을 상정(常情)으로는 헤아릴 수는 없는 일이지만, 다만 애당초 심의겸(沈義謙)과 결탁했던 자가 그였고 세력을 잃고 나서 불평 불만을 품고 진신(縉紳)을 이리 저리 죄를 얹었던 자도 그였으며, 이이가 마지못해 분소(分疎)하여 결국 사류(士類)들이 대립되게 만들었던 것도 역시 그가 한 것입니다. 이제 사사로운 감정을 품고 그것을 풀기 위한 마음으로 기회를 이용하여 모함하려는 계책을 꾸미고 있으니, 모르겠습니다만 정직한 사람 훌륭한 군자(君子)도 차마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³²⁾

이 기록을 보면 정철이 심의겸(沈義謙)과 결탁해 이리 저리 죄를 얹은 사실과 사사로운 감정을 품고 그것을 풀기 위해 기회만 있으면 남을 모함하려는 계책을 세운다는 사실이 문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철이 창평(昌平)으로 축출되는 계기가 되는 결정적인 탄핵문인 《선조》18년 9월 2일의 자료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탄핵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정치 현실에서 정철이 속한 서인 계열이 지속적으로 열세에 놓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시조 작품은 정철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평창에 가 있는 기간 동안에 지은 것이다.

(8) 『歷·時』 1798, 『松蘿』 42, 심의산³³⁾ 세네바회 감도라 취도라
五六月(오륙월) 낮계죽만 살얼음 지편우회 존서러 섯거타고 자취논 디엇
겨늘 보앗는다 남아남아
온놈이 온말을 호여도 님이 짐작호쇼셔 鄭澈

32) 《선조》017, 16년 9월 12일.

33) '심의산(深意山)'은 불가(佛家)에서 우주의 중앙이라 여기는 수미산(須彌山)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모든 이본(異本)에 '수미산'이 아닌 '심의산'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종교적 의미를 지닌 수미산의 뜻으로 인식·사용했을 것 같지 않다. 게다가 다른 시조 작품(『歷·時』 795), '...(前略)...深意山 보진 범도...(後略)...'에서 심의산을 범이 사는 깊은 산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면 심의산은 '깊고 험준한 산', 즉 심산유곡(深山幽谷)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더욱 농후하다.

동서(東西)의 봉당 구도에서 서인 강경파의 핵심 멤버이던 정철은 늘 동인들의 탄핵 대상이 되었다. 스스로의 정치적인 소신을 펼쳐나가기보다는 오히려 반대파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을 궁구(窮究)해야만 했던 참담한 정치 현실은 위의 자료 (8)과 함께 실린 시조 작품에 세상 공명을 다 버리고 청산이나 벗삼자는 체념적 다짐, 정치 현실에 대한 근심, 버림받은 자신에 대한 자포자기한 심정, 세도(勢道)의 유무에 따라 변해 가는 세상 인심 개탄, 당쟁의 유해성 등의 내용³⁴⁾이 가득하도록 유도했다. 이 작품 또한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근심을 드러낸 작품이라 할 것이다. 초장과 중장에서는 터무니없는 소문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는 당시 자신을 둘러싸고 떠도는 소문이나 다른 정파(政派)의 탄핵 논리가 오뉴월 한낮의 시냇물에 살얼음이 끼고, 그 위에 원서리가 섞여 치며, 자국눈까지 뿌리는 것만큼이나 허무맹랑한 소리로 여겨졌음을 지적해주고 있다.

셋째, 《고산유고(孤山遺稿)》에 명시되어 있듯이 윤선도의 작품 <견회요(遣懷謠)>가 지어진 시기는 1618년(光海 10 : 戊午)이다. 1616년(광해 8) 윤선도는 성균관 유생의 입장에서 이이첨(李爾瞻)·박승중(朴承宗)·유희분(柳希奮) 등 당시 집권 세력의 죄상을 격렬하게 규탄하는 <병진소(丙辰疏)>를 올렸고, 이로 인하여 이이첨 일파의 모함을 받아 함경도 경원(慶源)으로 유배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견회요(遣懷謠)>5수와 <우후요(雨後謠)>1수 등의 작품들을 지었다.

아래 자료에는 윤선도의 병진년 상소에 대한 정계의 반응이 잘 나타나 있다.

34) (1) 새원원췌되여 柴旌(쇠비)를 고터닷고 流水(누수) 背山(청산)을 벗사마 더뎛노라 아히야 碧蹄(벽대)에 손이라커든 날나가다 호고려 (2) 長沙王(당사왕) 가태부(賈太傅) 헤어든 우음고야 놔대되 근심을 제혼자 맛다이셔 긴 한숨 눈물도 커든 예에 흘출 엇데오 (3) 내양자 놔만 못흔 줄 나도 잠간 알전마는 연지도 브러잇고 분씩도 아니미네 이러코 피실가 뚫은 전혀 아니 먹노라 (4) 나모도 병이 드니 亭子(당조)라도 쉬리업다 蒙華(호화)히 서신제는 오리가리 다 쉬더니 넘디고 가지것근 후는 세도 아니 안논다 (5) 어와 버힐시고 落落長松(낙낙당송) 버힐시고 저근덧 두던들 棟樑材(동량재) 되리러니 어즈버 明堂(명당)이 기울거든 므서스로 바티려노 (6) 풍파의 일니던 비 어드러로 가뎛말고 구름 머흘거든 처엄의 날 줄 엇디 허술흔 비 두신 분네는 모다 조심 호쇼셔(星州本 《松江歌辭》)

(9) 양사가 합계하기를,

“신들이 그에게 삼가 윤선도의 상소의 대계를 보았는데, 서로들 경악하고 괴이하게 여기면서 그 까닭을 몰랐습니다. 그 상소에 대신·삼사·후설·전조를 끝없이 비난하며 공격하였습니다. 그가 역적을 토벌한 신하에게 악명을 씌우고 사류(士類)를 모조리 죽여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웠으니, 참으로 음험합니다. 근래의 괴이한 무리들이 사람을 포함했던 상소에 건주어 볼 때에 윤선도의 상소는 더더욱 심합니다. …(중략)… 헤아릴 수 없는 책책과 경악스러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성상의 총명하심에 힘입어 그 간사함을 부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또 들으니, 사악한 의논을 주장한 이원익을 사마광에다 건주었고 임금을 협박하고 나라를 저버린 이덕형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몸바친 자라고 하였으며 성상의 공적을 덮어 가린 심희수를 소신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기타 홍무적(洪茂績)과 정택희(鄭澤熙)와 김효성(金孝誠) 등, 역적을 편들고 임금을 모함에 빠뜨린 역적들을 죄가 없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중략)… 신들은 모두 하찮은 자들로서 언론의 직임을 맡고 있으면서, 역적을 토벌하는 큰 의리를 밝히지도 못하고 도리어 여러 잔당들로부터 망국한 비난을 당하고 악명을 받았으니,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신들을 모두 파직하소서.”

하였는데, 답하기를,

“흉악한 상소에 대해서 무슨 더불어 따질 것이 있겠는가.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사식하지 말라.”

하였다.³⁵⁾

윤선도가 올린 상소는 이이첨 무리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인재 등용을 불공정하게 행함으로써 작게는 관리들의 아침을 성하게 하고 크게는 임금을 위태롭게 하였으니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위복(威福)을 멋대로 농단한 이이첨을 베고, 임금을 잊고 나라를 저버린 유희분(柳希奮)과 박승종(朴承宗) 등의 죄를 다스리라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었다.³⁶⁾ 이 상소에 대해 승정원(承政院)과 삼사(三司)와 관학(館學)에서는 이이첨의 뜻을 받들어 윤선도가 어진 이들을 모함하고 역적 김제남의 옥사를 뒤집으려 한다는 식의 극론을 펴고, 이이첨은 무신년 이래로 누차 국난(國難)을 만나 성상을 보위하고 유영경(柳永慶)·이홍로(李弘老) 등 역적을 토벌하고 사론(邪論)을 배척한 충성과 절의가 있는 인물이고, 효우(孝友)와 청백(淸白)은 온 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라고 옹호한다. 이에

35) 《광해》110, 8년 12월 23일.

36) 《광해》110, 8년 12월 21일 참조.

반해 윤선도에 대해서는 사악한 계략 아래 임금을 속이고 뺏사람을 비방하고 역적을 옹호하고 임금을 모함하였다며 속히 죄를 주어 공정한 도의와 엄한 법전을 보이기를 청하였다. 이와 같은 주청(奏請)에 따라 왕까지도 윤선도의 상소를 '흉악한 상소'라 하였으니 여기에서 당시 정국에 대한 윤선도의 인식이 암울했음은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다.

1618년에 유배지 경원(慶源)에서 지은, <사룡>의 구조를 취한 그의 시조 작품에는 막강한 권세 앞에서 정당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서로 뒤바뀌고, 임금조차도 그들의 농단에 휘둘리는 정치 현실에 대한 아쉬움과 근심이 잘 나타나고 있다.

④ 『歷·時』 592, 『孤道』 71 내 일 망녕된 줄을 내라호야 모를손가 이 막
은 어리기도 님 위할 타시로쇠 아미³⁷⁾ 아미리 닐러도 님이 해여 보쇼셔(遺
接謠 5-2 戊午(1618) 謫慶源時所作) - 윤선도

① 또한 <사룡>계 시가에 속하긴 하지만 여타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면 약간의 구조적 차이를 보이는 작품이다. 초장과 중장에서는 소문에만 머물지 않고, 소문이 낳은 결과를 놓고 스스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반성에서 오는 아쉬움이란 후회의 감정과는 사뭇 다르다. 여기에는 정당한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정치 현실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과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이 담겨져 있다. 종장의 표현도 체념적 언술보다는 군주에 대한 근심·당부의 어법을 취해 함께 할 미래를 기약하는 언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들을 종합해 볼 때, 주로 '온몸이 온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호쇼셔'로 마무리되는 <사룡>계 시가는 정적(政敵)이나 소문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곤궁한 처지에 처했을 때, 자신의 미약한 힘으로는 상황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체념·탄식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최종적 판단 주체에게 믿음·사랑을 구하기 위해 창작한다. '사람들이 결백한 나를 두고 터무니없는 염문(讒聞)을 퍼뜨렸는데도 스스로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음을 답답해하는 시조 작

37) '아미+' '인테 '아미'는 아미[美]의 뜻이고 'ㅣ'는 주격조사이다.(劉昌淳, 《李朝語辭典》(연세대 출판부, 1964))

품³⁸⁾도 이와 같은 <사룡>계 시가의 발생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하겠다.

Ⅲ. <蛇龍>系 詩歌의 전개 양상과 그 의미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룡(蛇龍)>계 시가는 터무니없는(화자) 소문에 시달리는 화자가 : 상황에 대해 탄식하고, 궁극적으로는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련한 방어 전략의 하나이다. 소문이란 순간간에 여러 사람에게 퍼진다는 강력한 전파력과 부정적인 것이 더욱 빨리 전해진다는 묘한 속성 때문에 누구에게나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불리한 소문이 떠도는 곤궁한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스스로 진실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지금부터 각각의 작품들이 소문을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하는 문제와 소문에 관한 화자의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사룡>계 시가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사룡(蛇龍)>계 시가들이 가지는 소문에 대한 첫 번째 대응전략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의 나열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소문의 허황함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는 일정한 사건이나 소문에 대한 자신의 논리적 항변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답답한 상황, 즉 소문에 대한 자기 방어력이 극도로 약화된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다음 작품 (1), (2)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비롯되는 감정 전환을 잘 보여주고 있다.

(1) 『歷·時』 134. 『瓶歌』 925. ① 기암이 불기암이 존동 쪽 부러진 불기암이 ② 앞발에 정중 나고 뒷발에 종괴 난 불기암이 廣陵³⁹⁾지 넘어 드러 가

38) 『歷·時』 2113 “玉의는 피나 있니 말코흐면 다 님이신가 / 니 안 뒤혀 남 못 띄고 天地間의 이런 답답함이 또 인는가 / 원 놈이 원 말을 호여도 님이 斷斷 호시소”

39) ‘광릉(廣陵)’은 실제 지명을 지칭한 것일 수도 있고, 범박하게 ‘넓은 구릉(언덕)’을 말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중의적(重意的)으로 사용하였다. 실제 지명의 의미 일 때는, 1) 경기도 광주(廣州)의 옛(탄) 이름 2) 한성부(漢城府)의 한 군(南京·漢陽·南平壤·北漢山·楊州·廣陵-《新增東國輿地勝覽》제3, 漢城府) 3) 발해 62주 중 철리부 소령(鐵利府所領) 등을 모두 광릉이라 칭하였으므로 이 가운데 한 지방을 의미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본(異本)에 따라 ‘광릉’은 ‘광릉(光陵)’(詩

람의 허리를 가로 물어 취척 들고 北海를 건너단 말이 이서이다 넘아 남아
③ 원놈이 원말을 호여도 남이 斟酌 호소서

자료 (1)은 초장과 중장인, '①+② = 원말 = 소문'의 구조를 지닌 전형적인 <사룡(蛇龍)>계 시가에 속한다. ①, ②에 나열된 내용들의 신빙성이 부족할수록 온갖 사람들의 온갖 말들은 허구가 되는 것이기에 불가능함을 강조하기 위해 설정한 상황이 더욱 복잡 미묘해진다. 이 작품은 1) 개미의 잔등이 부러지다. 2) 개미의 앞발에 부스럼이 나다. 3) 개미의 뒷발에 종기가 나다. 4) 개미가 높은 언덕을 넘다. 5) 개미가 쫓범의 허리를 가로[橫] 물다. 6) 개미가 북해를 건너다. 등 6단계의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열된 6단계가 모두 진실성을 인정받아야만 소문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므로 이와 같은 상황 설정 자체가 소문의 근거 없음을 지적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 작품 (2) 또한 이와 같은 상황 설정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소문에 대한 자신의 담담함을 하소연하고 있다.

(2) 『歷·時』 834, 『瓶歌』 951』 大川바다 호가운데 中針細針 썬저거다
열아른 沙工이 길남은 沙於⁴⁰⁾를 쫓가지 두러매여 一時에 소리치고 귀
췌여 내단말이 이서이다 남아남아
원놈이 원말을 호여도 남이 斟酌 호소서

위의 작품에서는 대천(大川) 바다 한가운데 중침(中針)과 세침(細針, 가는 바늘)이 빠지고, 바다에 빠진 바늘에 상앗대를 꿰려 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까지의 설정 자체가 이미 무모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도 1) 여러 사공들이 끝이 무딘 상앗대를 돌다. 2) 상앗대를 멀찌감치 쫓다.(끝까지 둘러매다) 3) 소리를 지르다 라는 상황 설정을 더함으로써 무모함은 순식간에 불가능으로 바뀐다. 이 작품의 화자가 매우 어이없고 난처한 지경, 즉 자신을 둘러싼 소문으로 고통받는 상황에 처해 있음은 단번에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자는 그 소문을 듣고 오해할 지 모르는 남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방법조차 찾

歌·靑가)·‘강일(江一)’(靑六)·‘문경(聞慶)’(永類)으로, ‘썬재’는 ‘썬지’·‘새재’·‘식재’·‘식음지’로 표현된 것이 있음을 보면 광릉은 넓은 언덕, ‘썬재’는 샘[泉]이 있는 재 정도의 광범위한 의미로 인식·전승되었을 확률이 높다.

40) 槎枒, 사곶데. 물이 얇은 곳에서 배를 밀 때 쓰는 긴 막대.

지 못하고 상황에 가위눌려 있다. 그런 상황에서 화자는 넘어 ‘대천바다에 크고 작은 바늘이 빠져 열이 넘는 사공이 삼앗대를 높이 들어 일시에 소리치며 바늘귀를 꿰었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나에게 관해서 누가 무슨 협담을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말고, 나의 결백함을 믿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상의 작품 ①, ②와 같이 소문을 나열하는 전반부에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일이 나열될수록 사건에 대한 화자의 억울함이나 황당함이 크고,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증폭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진실 강론(講論)의 내면적 욕구가 강할수록 ‘소문’을 나열하는 부분에는 더욱 실현 불가능한 일들을 제시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소문의 허구성 부각은 자기 변론을 통해서만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문 = 일어날 수 없거나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는 등식을 만들어 허위의 소문이 가지는 원심력을 약화시키고, 진실이 가지는 구심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사룡(蛇龍)>계 시가들이 소문에 대해 취하는 두 번째 대응 전략은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의 잘못을 공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의 진실성을 인정받아 소문의 의혹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사룡>계 시가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한 화자의 불만은 특히 종장에 잘 드러나 있다. 그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 시가의 종장 부분만을 따로 떼어놓고 살펴보기로 하자.

- ③ ① 원(은)놈이 원(은)말을 하여도 넘어도 넘어 圓(은)호소서
 ② 外(은)놈이 外(은)말을 하여도 넘어도 넘어 짐작호소서
 ③ 열놈이 백말을 할피라도 넘어도 넘어 짐작호(여 드르)시쇼
 ④ 百(은)놈이 百(은)말을 하여도 넘어도 넘어 짐작호소서
 ⑤ 誤(은)놈이 誤(은)말을 하여도 넘어도 넘어 짐작호소서
 ⑥ 아미 아미리 널러도 넘어도 넘어 해여 보쇼서
 ⑦ 열놈이 外(은)말을 하여도 넘어도 넘어 짐작호소서

이 가운데 ①, ③, ④, ⑤는 모두 별다른 불만 의식이 개입된 것이 아니므로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말을 하여도 넘어도 넘어 알아서 해아려 주십시오’와 같은 온건한 요구로 풀이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②, ⑤, ⑦에는 분명 소문을 낸 사람들에 대한 못마땅한 감정이 개입되어 있다. 이 가운데 ②, ⑦에서 ‘외(外)’는 어떤

일에 관계없는 데 바깥의 사람이란 뜻이므로, 소문의 당사자가 처하게 될 난처한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남의 일인 양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긴 말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⑤에서 ‘誤인놈이 誤인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하쇼셔’(일석본(一石本) 《해동가요》)라 한 것은 스스로는 진실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낸 소문은 거짓으로 진실성이 없다는 판단을 담고 있다. 결국 이 말은 소문이나 소문을 낸 사람들에 대한 공격적 태도를 내보인 것이다.

<사룡>계 시가의 마무리 부분이 가지는 압축성 때문에 내포하는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기 힘들고, 여러 작품에 동일하게 등장한다는 상투성으로 인해 눈여겨 보지 않을 수 있지만 윤선도 시조의 종장인 위의 ⑥에도 이미 상당한 공격성을 함축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 시조 작품과 함께 유배지 경원(慶源)에서 지은 <차낙망운(次樂忘韻)>에는 보잘 것 없는 자신을 돌이켜 반성해 보지만, 자신의 상소를 왕에게 전한 어질지 못한 자들의 과오가 잊혀지지 않는다⁴¹⁾고 슬회하고 있다. 이는 병진년, 자신의 상소에 대해 진의(眞意)를 가리고 왕에게 외곡하여 전한 양사(兩司)의 신하들에 대한 읍문을 토로한 것이다. 그러므로 시조 종장의 ‘아미 아미리 닐러도 님이 헤여 보쇼셔’에도 그들에 대한 윤선도의 부정적 감정과 공격적 의도가 섞여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①, ③, ④, ⑤에서처럼 여러 사람이 온갖 소문을 퍼뜨려도 님반은 내 진심을 알아 줄 것을 희망하고, ②, ⑤, ⑦처럼 소문의 허구성이나 소문을 내는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것은 모두가 나의 진실을 가리는 소문과 헐뜯음, 또 그것들이 만들어 놓은 오해와 의혹의 막(膜)들을 제거하고 변하지 않는 나의 진실이 드러나길 바라는 기대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사룡(蛇龍)>계 시가 전체의 창작 정신으로, 아래에 제시하는 김만중이나 사마천의 글에도 비슷하게 드러나 있다.

(4) 옥인가 돌인가는 정한 바탕이 없고 고운가 미운가는 바른 빛깔 없도다
 옥인가 돌인가는 사람의 입에 달려있고 고운가 미운가는 그대의 눈에 달려도다
 해와 달이야 본디 빛이 밝으나 헐뜯는 말이 스스로 막(膜)을 이루도다.⁴²⁾

41) “聖主恩天地 微臣偶此身 杜門思改過 稽古匪求仁 顏敢開明月 心多愧格神 相應傳者誤 賢豈浪稱人”(尹善道, 次樂忘[金時讓]韻, 《孤山遺稿》卷1 ; 《韓國文集叢刊》91, p.260).

42) “玉石無定質 妍媸無正色 玉石在人口 妍媸在君目 日月本光明 謠言自成膜”(金萬

자료 (4)는 서포 김만중이 <사룡>을 연의(演義)한 것이다. 이 글은 사물이 나 사건, 사람의 옳고 그름은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남의 헐뜯는 말만 듣고 함부로 판단하게 되면 사물의 본질이나 참모습을 살필 수 없음을 경계하고 있다. 남을 헐뜯는 말은 그 말을 듣는 상대방까지도 그 판단에 얽매이고 지배되게 하는 마력을 지녔으므로 결국 사건과 사물에 대한 진실을 가리는 막(膜)이라 비유한 것이다. 김만중의 연의는 <사룡>계 시가가 내포하는 궁극적 의미, 즉 허위와 과장의 막이 없는 진실을 예각화시키고 있다. 김만중이 “<삼장> · <사룡>이 비록 우리말로 되어 있어도 유달리 예스러운 흥취가 있다.”⁴³⁾고 한 점도 이와 같은 함축적 의미에 주목한 결과가 아닐까 한다.

<사룡>계 시가의 이러한 창작 정신이나 내포적 의미는 아래에 제시한 《사기(史記)》의 기록과도 일치하고 있다.

(5) 저(褚) 선생은 말하였다.

“남편은 용과 같이 변화하는구나.《좌전(左傳)》에 이르기를 ‘뱀이 변하여 용이 되는데, 그것의 무늬는 변하지 않는다. 가주(家主)에서 국주(國主)가 되었지만 그 성씨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남편이 부귀할 때에는 온갖 걸함이 모두 가려져 영화(榮華)만이 빛나지만, 빈천할 때에는 작은 어려움이 라도 어떻게 그대의 권력과 지위에 연루시킬 수 있겠는가! …後略)…”⁴⁴⁾

자료 (5)에서, 뱀 · 용을 예로 든 소재적인 측면과 그 속에 담겨 있는 ‘사물이 나 현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본질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내포적 의미는 묘하게도 고려숙의 <사룡(蛇龍)>의 소재와 ‘어떠한 소문이 난무하든지 나의 진실은 변함이 없으니 그를 믿어 달라’고 남에게 호소하는 <사룡>계 시가 결말부의 의미와 일치하고 있다. 이인로의 《파한집》에 “슬프다, 주나라 이후 천 여년에 / 비 때리고 바람 내려쳐 이지러진 데 많고, 남은 것은 다만 한 줄 몇 십자뿐이니, 사룡(蛇龍)의 한 조각을 누가 다시 아껴주리. …(후략)…”⁴⁵⁾라는 구절

眞, 樂府 其二, 《西浦集》卷2 : 《韓國文集叢刊》148, p.23).

43) “其語雖俚而殊有古意 (今輒擬而稍演之云)…”(後略)…”(金萬重, 樂府 其二, 《西浦集》卷2 : 《韓國文集叢刊》148, p.23.)

44) 褚先生曰 丈夫龍變 傳曰“蛇化爲龍 不變其文 ; 家化爲國 不變其姓” 丈夫當時富貴 百惡滅除 光耀榮華 貧賤之時何足累之哉! [司馬遷, 《史記》卷 49, 外戚世家 第 19 ; 瀧川龜太郎, 《史記會註考證》(彰文閣, 1978), p.762.]

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룡(蛇龍)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흔적이 남아 있는 굴’, 즉 세월이 흘러도 아직 예전의 모습이 남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면 ‘사룡(蛇龍)’은 환경에 의해 쉽게 변치 않는 내면적 진실을 강조할 때마다 줄곧 사용하던 말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고려사》편찬자들이 이 시가 양식을 <사룡>이라 기록한 것도 이러한 의미 충위를 준중한 명명(命名)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사룡>계 시가가 소문의 허위성을 극복하고, 자신의 진실성을 회복하기 위해 취한 세 번째 전략은 최종적인 결정권자, 즉 지존(至尊)인 님에 대한 초점화이다. 이는 스스로의 변론을 통해 난관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서, 사전이나 소문에 대한 진위 판단을 실권자인 ‘님’에게 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그 상황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화자에 대한 긍정적 판단을 유도하려는 이유 있는 관심 모으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앞의 II장에서 살펴본 정철이나 윤선도의 시조 작품처럼 군주불 시적 청자(‘님’)로 설정한 작품들이 가진 의도성은 더욱 커진다 할 수 있다. 다음 자료는 당시 사람들이 절대 군주인 왕에 대해 가지던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룡>계 시가 가운데 군주를 님으로 설정한 작품들은 이와 같은 의식이 특히 강하게 배여 있다.

(6) 고신(孤臣)과 원녀(冤女)는 그 의미가 같은 것이다. 여자는 비록 지아비에게 버림을 받더라도 자신 또한 (지아비를) 저버림은 옳지 않고, 신하는 비록 임금으로부터 멀리함을 당하여도 자신도 (임금을) 소원하게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중략)… 무릇 그 임금이나 지아비의 온총을 받은 자가 임금이나 지아비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모두 그러해야 하는 것이지만은 그 임금이나 지아비의 온총을 잃고서도 그 임금이나 지아비를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곧은 신하나 열부(烈婦)라야만 능히 할 수 있는 것이다.⁴⁵⁾

자료 (6)에서는 유배 간 신하를 지아비로부터 버림받은 여자에 비유하고 있

45) “…(前略)…嗟哉去國千載餘 雨打風摧多壞缺 所留一行十數字 蛇龍片甲誰復惜…(後略)…”[李仁老, 《破閑集》卷下 : 《高麗名賢集》,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86, p.101.]

46) “嗚呼 孤臣冤女 其志同也 女雖見絕於夫 而不宜自絕焉 臣雖見疎於君 而不以自疎焉 …(中略)… 夫得其君夫之恩寵 而愛其君夫者 常人皆然矣 失其君夫之恩寵 而愛其君夫者 必貞臣烈婦而後能之也”(金相肅, 附 纈思美人曲 并序跋, 《松江別集 追錄》卷1).

다. 여자는 비록 지아비에게 버림을 받더라도 스스로는 지아비를 저버리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멀리함을 당하는 경우라도 임금을 소원하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임금의 은총을 잃고서도 임금을 사랑하여야만 곧은 신하일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곧은 신하로 남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 작품 (7)은 군주에 대한 이와 같은 기본 의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7) 이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호성 緣分(연분)이며 하늘 머물
 일이런가 나 호나 점어있고 님 호나 날 피시니
 이 몸은 이 사랑 견줄더 노
 여연다平生(평성)에 願(원)호요더
 훈더 네자 호했더니 늙어야 보스
 일로 의오 두고 그리는고...(후략)...47)

정철의 <사미인곡>은 유배지에서 군주를 그리워하며 지은 가사 작품이다.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따라 태어났으니, 이는 한평생 함께 살아갈 숙명적인 인연임을 말한다. 나는 오직 님만을 위하여 젊어 있고 임은 오직 나만을 사랑하시니, 이러한 나의 마음과 님의 사랑은 견줄 곳이 없다. 이러한 표현은 님과 나와의 긴밀한 인연을 강조하고 군주에 대한 자신의 충성을 극대화한 것이다. 당시 사대부들은 군주에 대해 (6)과 같은 사고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왕명에 의한 유찬(流竄)일지라도 왕을 원망하는 듯한 표현이란 있을 수 없다. 다만 (7)과 같이 군주에 대한 충성과 연모를 구가(謳歌)할 뿐이다.⁴⁸⁾ 특히 소용돌이치는 정치 현실 속에서 유배지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자신이 소수파에 속해 있거나 정치적 입지가 매우 약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군왕에 의지하는 마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만사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인 군주에게 드리는 충성과 헌신도 자연 커질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연군 시가들은 이와 같은 결핍 상황에서 탄생한다.⁴⁹⁾ 그리고 나와 님의 관계는 대부분 여성과 지아비의 관계로 설정하여 오로지 님(군주·지아비)에 초점을 두고 있다.

47) 鄭澈, 思美人曲, 關西本 《松江歌辭》(松江集附錄).

48) 張德順, 流配歌辭試考, 《國文學通論》(新丘文化社, 1988), p363 참조.

49) 김석희, 앞의 논문, p.237 참조.

(8) 『歷·時』 592, 《孤遺》 71 내 일 망녕된 줄을 내라호야 모를손가 이
 므옵 어리기도 님 위호 타시로셔 아미 아미리 닐러도 님이 헤여 보쇼셔(遺
 懷謠 5-2 戊午(1618) 謫慶源時所作) - 윤선도

(9) 내 일이 진실로 때에 맞지 않은 줄을 吾事固非時
 너도 알건마는 내가 미처 몰랐구나. 汝知吾不知
 글을 읽은 자가 너만도 못하니 讀書不及汝
 천치라고 이를 만도 하구나.⁵⁰⁾ 可謂天生癡

자료 (8), (9)는 모두 윤선도의 문집에 실려 있는 작품으로 비슷한 일을 두고
 제시형식만 달리 한 것이다. 둘을 종합해 살펴보고 작품의 창작 시기를 헤아려
 보면 여기서 말하는 ‘내 일’이란 이이첨(李爾瞻) 등 당시 집권 세력의 죄상을 규
 탄한 <병진소(丙辰疏)>를 올린 일임을 알 수 있다. 이 일은 그를 함경도 경원
 (慶源)으로 유배가게 한 결정적 사건이다. 이 작품은 ‘이이첨을 탄핵한 일의 무
 모함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므로 사람들은 시대에 대한 자조를 섞어 나를
 천치라고 부른다. 내가 그 일이 진실로 때에 맞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은 흑운(黑雲)과 같은 권신(權臣)들에 왕의 총명이 흐려
 질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남들이 이 일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하더라도 님만이
 내 심정을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식의 논리 흐름을 가지는데, 최종적
 으로는 “님이 헤여 보쇼셔”에 의미가 집약된다. 무엇이 충성스러운 간언(諫言)
 인지 님이 알아서 가려달라는 호소인 것이다. 이렇듯 작품에서 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신을 여성 화자로 분장하는 것은 군신 관계에 인간적인 감정의 교류
 를 접속하여 자신의 상황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
 은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정치적 의미를 담은 작품에서 님에게 초점을
 두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왕권 중심 사회에서 관운(官運)을 지속하기 위해
 는 분분(紛紛)하기 마련인 공론(公論)의 인정을 구하는 것보다 지존(至尊)이요
 권력의 본산(本山)인 군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방
 법이기 때문이다.

님을 향한 초점화는 다음과 같은 작품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50) “謫慶源時 路傍人 洪原妓趙生 丁巳”(尹善道, 戲贈路傍人, 《孤山遺稿》卷1 ; 《
 韓國文集叢刊》91, p.258).

00 『歷·時』 2113 玉의논 희나 잇너 말곶흐면 다 님이신가
 너 안 뒤혀 남 못 뵈고 天地間의 이런 답답함이 또 인논가
 원 놀이 원 말을 하여도 님이 斟酌 하시소

작품 10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옥에는 티가 있을 수 있어도 내게는 그런 티끌 하나 없을 만큼 깨끗하건만 세상에는 나의 부정(不貞)을 지탄하는 소문이 무성하다. 남들에게 내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으니 세상에 이런 답답한 노릇이 또 있을까. 결국 화자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오로지 님의 판단에 맡긴다. 님에게 초점을 모아 님의 존재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앞의 예문 (8), (10)을 비롯한 모든 <사롱>계 시가의 공통적인 마무리 방법이다.

위의 (10)과 같은 작품은 작자를 알 수 없어 시대적 상황과 연관지을 수는 없지만, 앞에서 살핀 다른 작품들과 연관지어 본다면 이 작품 또한 단순히 남녀 관계에서 생겨난 오해 문제를 다룬 것으로만 볼 수는 없을 듯하다. 김만중(1637~1692)이 1674년(顯宗 15) 금성(金城)에 유배가 있으면서 남녀 관계에 빚대어 혜중(惠仲) 이민적(李敏迪, 1625~1673)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⁵¹⁾을 지은 것을 보면 남녀 문제에 의거한 우의(寓意)적 글쓰기는 군신 관계뿐만 아니라 지인(知人) 관계 등에도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작품들도 남녀 차원을 넘은 어떠한 고난 상황에서, 절대적 존재 가치를 가지는 인물에 초점을 둬으로써 그의 힘에 의해 고난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지어진 작품일 수도 있다.

IV. <蛇龍>系 詩歌의 문학사적 의미

<사롱>계 시가는 자신의 입지가 약해진 상황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고 절대적 존재인 '님'에 대한 향일화적(向日花的) 태도와 충성을 내보이고 있

51) “甲寅春 余以侍從被罪 謫居金城 而李都憲惠仲卒於原州 余既以長篇四百字哭之 復作此詩 托之男女之際 以申前詩未盡之意 且以竊自附於李公者 蓋以男女君臣之情…”(金萬重, 讀班婕妤梅妃故事 感而賦之, 《西浦集》卷2 ; 《韓國文集叢刊》148, p.21).

다는 점으로 미루어 넓은 의미에서는 <원가(怨歌)> · <정과정(鄭瓜亭)> · <사미인곡(思美人曲)> · <속미인곡(續美人曲)> · 이항복(李恒福)의 시조 ‘철령(鐵嶺)~’ 등과 같은 연주지사(戀主之詞)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이들 시가의 사적(史的) 범주는 연주지사의 주된 정서와 비교할 때 더욱 명료해진다. 흔히 연주지사들은 주로 님의 사랑이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그럴 수 있는 절필·위기 상황에서 지어지기⁵²⁾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정서들이 주를 이룬다.

- (1) 즈시앗 브라나 누리 모든갓 여히온더여 (<원가>)
- (2) 드라리 그르메 느린 못갓 널 묻겨랏 몰애로다. (<원가>)
- (3) 내 님을 그리스와 우니다니 / 산곁동새 난 이숫호요이다 (<정과정>)
- (4) 아니시며 저츠르신들 아으 / 殘月曉星이 아릅시리이다 ... 過도 허물도千萬 업소이다 (<정과정>)
- (5)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정과정>)
- (6) 누어 생각호고 니러 안자 헤여호니 / 내 몸의 지은 죄 모갓 빠혀시니 / 하늘히라 원망호며 사릅이라 허물호라 / 설위 풀터해니 조몰의 타시로다 (<속미인곡>, 李選本《松江歌辭》)
- (7) 春寒苦熱은 잇디호야 디내시며 秋日冬天은 누라서 되셨논고 (<속미인곡>, 李選本《松江歌辭》)
- (8)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츠려 호노라 (<사미인곡>, 李選本《松江歌辭》)
- (9) 님 겨신 窓 안히 빈드시 비취리라 / 각시님 둘이야 크니와 구즌 비나 되쇼셔 (<속미인곡>, 李選本《松江歌辭》)
- (10) 孤臣冤淚를 비 삼아 석여다가 님겨신 九重深處에 썬려 볼가 호노라 (이항복 시조, 『歷·時』 2823, 『瓶歌』 185)

이 작품들에는 상황에 대한 절망과 체념,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신세의 처량함, 자기 반성((1)·(2)·(3)·(6)), 자신의 결백함에 대한 항변((4)), 자신에 대한 님의 사랑·믿음이 회복되어 님을 곁에서 모시고 싶은 심정((5)·(7)·(8)·(9)·(10))이 주를 이룬다. 이들 작품들은 대부분 ‘있는 것’(님의 결핍)을 부정하고, ‘있어야 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 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있어야 할 것’이 진실

52) 입금에 대한 충성을 강조한 연군가사(戀君歌辭)는 주로 유배 가서 지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배가사(流配歌辭)라고도 한다(김승찬·손종흠, 《고전시가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3, p.330).

하다고 확신하기에 이에 맞도록 ‘있는 것’을 개조하려는 노력이 치열하다.⁵³⁾

<사롱>계 시가 또한 님을 향해, 터무니없는 소문을 믿지 말고 자신의 결백·맹세를 믿어 달라는 항변을 담아내고 있다. 부당하게 오해받고 있는 현실, 용납할 수 없는 허위로 가득한 정치 등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현실을 이겨내기엔 스스로의 힘이 너무 약화되어 있는 비장함도 매우 짙어 있다. 특히 정치적·사회적 의미가 밝혀지는 정철·윤선도의 <사롱>계 시조와 여타의 연주지사들이 가진 공동 영역은 더욱 많다. 작자나 창작 시기가 알려지지 않은 다른 작품들은 ‘님’이 누구를 지칭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들 또한 화자가 원만한 관계를 지속하기를 바라는 어떤 대상을 향한 갈구에서 비롯한 것임에 주목하면 연주지사가 가지는 근본 의미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사롱>계 시가의 표현 양태(樣態)나 ‘님’의 의미는 여타의 연주지사와 상당히 다르다. 연주지사 계열의 다른 작품들은 자신에 대한 님의 사랑·민음이 회복되어 님을 곁에서 모시고 싶은 심정을 비유 등의 간접적 방법으로 은근하게 묘사한다(위의 예문 (8)~(10)). 또 이들 작품에서 ‘님’은 그 자체로 군주이고 하늘이다. 다시 말해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우러러보는 마음의 대상을 나타내는 총칭, 그 기호로 통한다.⁵⁴⁾ 그러므로 이들 작품들은 작품 내의 화자를 통해 입금에 대한 강렬한 충성심을 내보이고, 다시금 자신을 사랑해 달라는 요구를 거의 읊소(泣訴)에 가깝도록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에 비해 <사롱>계 시가는 소문을 과장하여 나열한 부분이나 종장의 마무리 부분에서 화자의 격앙된 어조가 매우 직접적이다. 거기다 여기서의 님은 화자의 난처한 상황을 짐작하고 헤아려줄 의무자로 형상화된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원인은 이 시가들의 구조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롱>계 시가는 단형의 구조인데다, 님에 대한 충성과 연모의 정을 표출하기보다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문 → 나에 대한 오해(현재 상황) ⇒ ㉠ 님(절대권자)에 의한 오해의 불식, 믿음의 회복 ⇒ 예전의 총애와 신뢰 회복, 충성

53) 조동일, 미적 범주, 《한국사상대계》 I,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72, p.475. 참조.

54) 鄭炳문·李御寧, 《古典의 바다》(玄岩社, 1977), pp.102~103 참조.

을 바침'의 단계 가운데 ㉠ 단계 이후를 드러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 작품은 억울한 소문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욕망이 더욱 두드러지는 현실 지향적 구조라 규정할 수 있다. 요컨대, 다른 연주지사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위의 (5)·(7)·(8)·(9)·(10)과 같은 그리움의 연사가 내부로 깊이 숨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과 '있어야 할 것'에 대한 갈구만이 극대화되어 다른 연주지사들이 소유하는 '있는 것'에의 융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연주지사 가운데 <사룡>계 시가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이다.

V. 맺음말

본고에서 다룬 <사룡(蛇龍)>계 시가란 '특정한 소문 + 소문에 대한 당사자의 반응'의 구조를 가진 시가 양식을 말한다.

<사룡>계 시가 가운데 작가나 창작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은 《고려사》악지의 <사룡>과 정철, 윤선도의 시조 등이 있다. 이들 작품을 통해 공통의 발생 동기를 추출하여 그 결과를 귀납적으로 일반화하여 <사룡>계 시가의 생성 근거를 밝힐 수 있었다.

먼저 《고려사》악지의 <사룡>은 충렬왕의 측근세력인 오잠 등이 자신들을 밀어내고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 하던 충선왕 계열의 개혁 세력이나 자신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던 여론의 비판적인 소문에 대해 자신들을 방어하고, 왕의 총애를 다짐 받아두려는 의도에서 지어진 작품이다. 그리고 이 계열의 정철·윤선도의 시조는 봉당 구도에서 스스로가 가진 정치적인 소신을 펼쳐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반대파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던 참담한 정치 현실에서 비롯한 작품이다. 결국 “온몸이 온말을 호여도 님이 짐작호쇼셔”로 마무리되는 <사룡>계 시가는 정적(政敵)이나 소문으로 인해 곤궁한 처지에 처했을 때, 제념·탄식의 어법을 취해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최종적인 판단주체로부터 지속적인 신의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를 지닌 시가 양식을 말한다.

<사룡(蛇龍)>계 시가들에 나타나는 소문에 관한 화자의 반응이나 태도는

매우 다양하고 때론 일정한 전략을 가진다. 소문에 대한 첫 번째 대응 전략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의 나열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소문의 허황함을 강변(強辯)하는 것이다. ‘잔등이 부러지고, 앞발에는 부스럼이 나고 뒷발에는 종기가 난 개미가 범을 물고서 언덕을 넘는다’는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해 소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그 예에 해당한다. 두 번째 전략은 모함하는 자들의 허위성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은 소문의 의혹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소문을 낸 사람들을 ‘外인놈(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떠벌리는 사람)’이나 ‘誤인놈(잘못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말들이 모두 잘못이라고 싸잡아 말하는 것 등이 그 실례에 해당한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결국 나의 진실함을 강변(強辯)하는 효과가 있다. <사룡>계 시가가 소문의 허위성을 극복하고 자신의 진실성을 회복하기 위해 취한 세 번째 전략은 최종적인 결정권자, 즉 지존(至尊)인 ‘님’에 대한 초점화이다. 이는 스스로의 변론을 통해 난관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서 사건이나 소문에 대한 진위 판단을 실권자인 ‘님’에게 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화자에 대한 긍정적 판단을 유도하려는 관심 모으기라 할 수 있다.

<사룡>계 시가는 절대 군주 사회에서 오로지 왕에게 기대고 님에게 자신의 변치 않는 충성을 맹세하는 <원가>·<평과정>·<사미인곡>·<속미인곡>등의 작품과 동일하게 연주지사(戀主之詞)에 속한다. 님을 향해 터무니없는 소문을 믿지 말고 자신의 결백·맹세를 믿어 달라는 항변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 부당하게 오해받고 있는 현실, 용납할 수 없는 허위로 가득한 정치 등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현실을 이겨내기엔 스스로의 힘이 너무 약화되어 있는 비장함도 매우 짙어 있다. 그러나 이들 시가군(詩歌群)은 은근한 자기 맹세, 부드러운 자기 표현이 아니라 좀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 그리고 그리움의 언사가 내부로 깊이 숨어버리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과 ‘있어야 할 것’에 대한 갈구만이 극대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 작품과 뚜렷한 변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고는 같은 계통으로 유형화될만한 시조 작품이 있는 고려속악 <사룡>을 주된 고찰 대상으로 삼고 이 계열 시가들의 창작 배경과 작품 전개 양상과 공통적인 의미 층위를 고찰해 보고자 했다. 그러나 작자나 창작 시기를 추정할 수

없는 몇 몇 작품들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의미 층위는 기존 공식을 대입하는 형식으로밖에 풀어내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모든 문학 작품은 각각의 창작 기반을 가지기 때문에 늘 공식에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한계는 더욱 명료해 진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을 제시하고, 그 사건을 ‘소문’ 모티프와 연관짓는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을 가지는 <삼장> · <사룡>을 연관지어 창작 당시의 문화 문맥을 되짚어 보는 일은 앞으로 남은 과제이다.

Abstract

A study on Development & Meaning of the Poems and Songs of <Sa-ryong(蛇龍)>Lineage

Hwang Byong-ik

1. The definition of concept : The poems and songs of <Sa-ryong(蛇龍)> lineage which this paper is dealing with are a poetry form that has the structure of a specific rumor and the reaction of the person concerned toward it. The following is the example of these works.

"(1) It is said that a small snake climbs up a lofty peak and a steep mountain ridge biting a dragon's tail fully. (2) Never believe the words when someone says them."

Number (1) conforms to a specific rumor and Number (2) to the reaction of the person concerned toward it. These patterns of works involves <Sa-ryong(蛇龍)> in Sok-ak item in 《高麗史》樂志 and many other poems and songs.

2. Formation basis : Among the poems and songs of <Sa-ryong(蛇龍)> lineage, the works authors and creation dates can be identified are <Sa-ryong(蛇龍)> and Jung-chol's and Yun-sun do's ones. From these works can the formation bases be established through common generation motives and their inductive generalization.

First, <Sa-ryong(蛇龍)> is a product designed to not only protected themselves from the reform groups of King 忠宣 lineage that had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ir political influences by means of pushing 吳潛 groups, King 忠烈's subjects back and people's critical and negative rumors but had the intention of putting the King on his oath for his good graces. And Jung-chol's and Yun-sun do's works were resulted from miserable

political situations, which led them to find defensive measures from the opposition instead of giving their political view under the clique system. After all, this type of poetry which ends "Never believe the words when someone says them." is poetic pattern that protects themselves from political opponents by the expression of resignation and lamentation and makes the subject of final judgement keep his promise when they are in trouble.

3. Developing aspect and its meaning : The reaction and attitudes toward rumors have various and considerable strategies. The first protection strategy of this poetry is to sophisticate the falsehood of rumors around them through the array of seemingly impossible situations. The example of them are the establishment of impossible situations like "an ant that has a broken back, a boil on a paw and a tumor one hind leg climbs up a hill biting a tiger.", which weakens the credibility of rumors. The second strategy aims at escaping from doubt around rumors through attacking the falsehood of plotters and winning the recognition of truth relatively. The examples are that rumormongers are defined as a person exaggerating thoughtlessly or a wrong person and are criticized altogether. To point out other's faults has an effect of sophisticating my truth. The third strategy to overcome the falsehood of rumors and recover truth is to focus on final determiner, or his majesty. This strategy aims at entrusting his majesty with the judgement of truth or falsehood about rumors entirely, thus triggering sympathy and ultimately inducing positive judgement.

4. Historical meaning among the poems and songs (1) The poems and songs of <蛇龍> lineage belong to those missing his majesty like <怨歌>, <鄭瓜亭> and <思美人曲> which solely rely on a king and swear constant loyalty to him in an absolute monarchy. (2) But this type of poetry takes not polite self-pledge and soft self-expression but more direct and strong methods of sending messages.